

특허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비상 대응 체제 가동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 대전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청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비상대응반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시스템은 관리원 광주센터에 위치해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타 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전자출원 시스템 등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기한이 있는 중간서류 및 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제출 기한이 연장(장애가 해소된 이후까지)됨을 안내하고, 특허 등을 출원할 경우에는 출원인이 특허청(대전 본청, 서울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주말 근무를 포함한 비상근무 체제를 마련했다.

이러한 내용은 특허청 대표 누리집(www.kipo.go.kr) 등을 통해 공지했다.

특허청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진행 상황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책임자	과 장	한규동 (042-481-5099)
		담당자	사무관	김경순 (042-481-5117)